

#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부모부양 의식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Old Age Preparation of Baby Boomers Give Dependents Awareness of Parent

박근수, 김태일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eun-Soo Park(kspark@joongbu.ac.kr), Tae-Il Kim(k3kim@hotmail.com)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가 가족 및 개인의 책임과 의무로 여겨져 왔던 부모부양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현실에 있어서, 시대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베이비부머 세대 스스로의 노후준비가 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종교, 주거상태, 월평균소득 등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경제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건강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여가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가족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주거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그리고 노후준비수준 총합 모두에서 부모부양의식과 관련하여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주거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과 여가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의확률이 .001(\*p<0.05)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경제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이 .005(\*p<0.05)의 유의확률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노후 준비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그들의 부모부양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 번째, 그들의 주거생활과 관련한 안정적 지원정책이 차별화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아직 젊은 그들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생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베이비부머 |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 부모부양의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effects on the awareness of parents supporting in their self retirement preparation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s who have faced relatively bad situation in this era considering the reality of great changes brought in the parents supporting spirit which was regarded as family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due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 result of this study, some points such as religious, living status and monthly average earning show meaningful result and also all of the colligation in the retirement preparation standard concerning economic living life, health life, leisure time, family life, dwelling life and leisure life shows most significance probability of .001(\*p<0.05) and retirement preparation standard relative to economic life indicates significance probability of .005(\*p<0.05). Eventually this result shows that the higher people have retirement standard, the higher parents supporting sprit they have. So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policy advices on the basis of this study. First stable supporting policy on their dwelling life should be assisted by differential methods, secondly social programs aid for leisure life through social activities like volunteer work are required, further more national based policy supports for youngsters are considered in order to reduce economic daily life on their economic activities.

■ keyword : | Baby Boomer Generation | Preparation of Old age | Retirement Preparation |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가 가족 및 개인의 책임과 의무로 여겨져 왔던 부모부양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현실에 있어서, 시대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베이비부머 세대 스스로의 노후준비가 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고령화는 소득, 건강, 부양, 수발, 여가 문제 등이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재정부담의 가중 등으로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존경과 가족 부양의 강한 책임의식으로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있었지만 급속한 서구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부모부양의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양의식 변화와 함께 한국전쟁 직후 출산율이 급상승한 1955년부터 가족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인 1963년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태어난 세대인 베이비부머(baby boomer)의 경우는 향후 더욱더 많은 사회 문제 유발을 잠재하고 있다. 이들은 안철행정부 2012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4.58%에 해당하는 743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최근 수명의 연장과 함께 조기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전 세대와는 달리 더 긴 시간의 노후를 보내야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세대는 베이비붐 전·후 세대와는 달리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사회적 격변 속에서 '성장 동력'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가정에 대한 책임까지 성실히 수행해 왔다. 이들은 최근 세대변화를 수용하여 은퇴 후에도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자립의식이 강하다[9]. 이들 중에서 2010년에서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311만 명이 직장으로부터 은퇴를 할 예정이며, 그 수가 많아서 이들이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되는 시기에는 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베이비부머 대부분은 자신의 노후 문제와 함께 그들의 부모를 부양하고, 또한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부양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비부머 당사자들의 대학교육 부담의 대상인 대학생을 자녀로 둔 50~60대의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154명의 노후준비에 실태를 살펴보고 노후준비에 실태에 따른 그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 논문은 한국노인복지학회 2014 추계 학술대회에서 본인이 발표하였던 내용을 수정보완 발전시켜서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 II. 이론적 배경

### 1. 베이비부머의 사회·경제적 특성

베이비붐 세대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가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성장 동력의 세대이다.

이들이 노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5.7%로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며 이들 모두가 노년기에 접어드는 2028년에는 22.6%가 노인으로 구성되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27].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베이비부머를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노후준비와 관련된 고용, 소득보장, 건강관리, 노후설계 등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으로서 노후부양과 관련한 가치관에 있어서 샌드위치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과 관련하여 '자녀나 가족에게 부양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전통적인 유교가치관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연금 등 사회보험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노후에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형태에서 '부부끼리, 혹은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에 대한 의존성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측면에서 부모는 부양하지만 자녀로부터는 본인의 노후보장을 기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부양

표 1. 노후 준비방법 (19세 이상 가구주, 주된 응답)

(단위 : %)

구분	계	준비하고(되어) 있음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음					
		소계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 주1)	소계	아직생각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능력없음	자녀에 개의탁		
전체	100	72.9	100	52.5	7.8	11.3	4.6	17.4	5.3	1.0	27.1	100	8.8	24.0	49.7	17.4
베이비부머	100	<b>80.2</b>	100	<b>58.6</b>	7.2	9.5	4.2	15.7	4.2	0.5	<b>19.8</b>	100	9.5	29.5	<b>58.6</b>	2.4

주1) 주식, 채권 등 포함  
출처 : 통계청(2013), 사회조사 보고서

제공'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18].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 소득 준비 상태와 관련하여 [표 1]에서와 같이 2013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19세 이상 가구주의 '노후 준비방법'에 대한 결과를 보면 72.9%가 '노후준비를 하고(되어) 있음'으로 대답하였으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에서 국민연금이 5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베이비부머는 '노후준비를 하고(되어)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에 비해 높은 80.2%이었으나, 베이비부머 중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19.8%이었으며, 그 중에서 58.6%가 '준비능력이 없음'으로 응답하여 전체 베이비부머 중 약 11% 특히 이 중 1950년대 생들은 노후가 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준비도 없이 노후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베이비부머들은 자녀에 대한 의존을 생각하고 있는 비율은 2.4%로서 매우 낮은 상태이다.

## 2. 부양의 정의 및 유형

노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서 1950년대 초에 Tuckman J. 및 Lorge의 연구를 효시로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16], 우리나라에서도 부모 또는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체의 도움을 부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8]. 그리고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돌보아야 한다는 의식으로 부모에 대한 의무·보호 부양과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자녀의 성숙된 부양태도와 노부모의 복지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적 의무감으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보호하려는 의무와 의지를 강조하는 것을 부양의식(Filial responsibility)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3]. 부양(扶養)이란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대상자의 생활을 경제적·정서적·신체적으로 돌볼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 [3]으로서, 첫째, 경제적 부양은 노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거나,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양형태를 말하며, 둘째, 정서적 부양은 노년기에 접어들어 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는 노인들이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켜주며, 인격적, 정서적으로 자긍심을 충족시켜 주는 부양을 의미한다. 셋째, 신체적 부양은 서비스 부양이라고도 하며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체력 저하나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노인의 수발을 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23].

## 3. 문헌 고찰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 탐색 결과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이거나 중년기의 일반적인 노후준비와 관련되는 내용[1][5][9][13][15][16] 등 이거나, 베이비붐 세대, 대학생 또는 일반 세대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내용 [1][3][6][7][11][17-19][24-26] 등 이었으며, 본 연구 주제에서와 같은 부모부양 의식에 있어서 노후준비, 더욱이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단지 본 주제와 다소 연관성을 보이는 부양의식과 노후준비 관계 연구인 최윤희의 중년기의 부부관계 및 부양의식과 노후준비와의 관계[26]에서는 남편의 노부모부양의식과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노후준비태도와는 상관이 없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연구는 본 연구와의 주제 변수 방향성에 있어서 반대의 경우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후준비 수준에 따른 부양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 변수 관련 문헌에 대하여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조사 검토하였다. 먼저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로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45세~65세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영역과 건강영역에서의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는 조사대상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1955년~1959년 출생 집단인 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1960년~1963년 출생 집단인 후기 베이비붐 세대가 전반적인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정순돌·이현희는 베이비붐 세대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모든 영역에서는 '끼인 세대'적 특성이 나타났으며, 경제적 노후준비에서는 친부모와 배우자부모에 대한 부양부담,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노인과 비교되는 베이비붐 세대만의 '끼인 세대'적 특성을 뒷받침해 주었다[22]. 여기서 '끼인 세대'란 위로는 부모를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녀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세대를 "끼인 세대(caught generation)" 혹은 "샌드위치세대(sandwich generation)"라고 한다[29][30]. 박현식의 연구결과는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 부양책임에 대해 본인과 정부, 가족(자녀) 모두의 책임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부양은 정부책임이, 정서적부양은 본인과 배우자의 책임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8]. 성공적 노후를 위한 노후준비는 정서적 준비가 경제적, 신체적 준비에 비해 중요도 및 예측에 있어서 상대적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재는 베이비붐 세대는 첫째, 공적연금가입률 59%, 개인연금가입률 11.5%, 퇴직연금가입률 1.5%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노후빈곤 가능성이 컸다. 셋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료비 지출이 염려되는 베이비부머가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이 노후에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컸다. 넷째, 경제수준이 낮은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빈

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16]. 한편 노후준비에 있어서 세대를 막론하고 실질적인 노후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소득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 선행연구[9][21][28]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노후준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일관된 경향이다[1]. 이승신의 연구에서도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동거가원수가 적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여가·경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저축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기타 소유주택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비독립보다 독립인 경우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그리고 유용식의 베이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월평균소득이 그리고 노후태도, 노후불안이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로 최옥숙은 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양주체 의식의 변화, 가족의 친밀감을 꼽았다[25].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서 성별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고 있었으며, 여자보다는 남자일 때, 그 중에서도 만이일 때 부모부양의식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에 있어서 나이가 많은 자녀일수록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미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양 형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한편 피 부양 대상 당사자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표 2]에 나타났다. 피 부양 당사자인 65세 이상 고령자의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가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36.6%)」,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34.6%)」, 「부모 스스로가 해결(22.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에 「부모 스스로가 해결」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가족이 부모부양을 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인 여성이 아버지인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단위 : %)

구분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기타
2006년	13.7	67.3	14.9	4.0	0.1
2008년	16.5	48.1	29.9	5.5	0.0
2010년	18.4	38.3	37.8	5.5	0.1
2012년	22.3	36.6	34.6	6.4	0.1
남자	25.8	34.7	33.9	5.6	0.1
여자	19.8	38.0	35.1	7.1	0.0

자료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베이비부머의 부모부양의식에 대한 연구로 최세영은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부양의식과 전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변수들을 아래 [표 3]과 같다고 하였다[24].

표 3. 부양형식에 따른 부양의식 및 상관관계

구분	인구학적 특성에 의한 부양의식	가족특성에 따른 부양의식	친밀감과 부양의식의 상관관계	회귀분석 결과
경제적 부양의식	성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	친밀감이 높을수록(하)	친밀감>월평균 소득
정서적 부양의식	성별, 학력, 직업, 평균소득, 거주 지역	출생순위	친밀감이 높을수록(상)	친밀감>학력>거주 지역>결혼후부모동거경험>월평균소득
신체적 부양의식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출생순위, 결혼 후 부모동거경험	친밀감이 높을수록(중)	친밀감>직업>결혼후부모동거경험>학력>성별
전체적 부양의식	성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출생순위, 결혼 후 부모동거경험	-	친밀감>월평균 소득>결혼후부모동거경험>학력>직업

출처 : 최세영(2011), 재구성

전혜성·김미영은 중년기의 부양의식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부모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인식하는 조사대상자의 효사상이 반영된 응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그들의 노후 설계와 연관해서 볼 때 노후설계의 전 영역에 걸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19]. 인지형이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중간 위치에 있는 50대~60대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가족의식 및 사회적 특성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가족의식은 연령과 경제수준에서, 부양의식은 연령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족의식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각 변수의 하위요인 간에 정(+ )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의

식이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높음을 확인하였다[12].

문지원은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수발)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세대 대다수는 기본적으로 부모부양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후를 자녀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부양의식은 주택소유여부, 직업유무, 부모의 건강수준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7].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 부양에는 경제적 상황과 신체적 부양부담 정도가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모부양의식에 있어서 노후준비수준에 따른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선행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종속변수인 베이비부머의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독립변수인 노후생활준비수준을 5가지로 구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은 분석틀로 도식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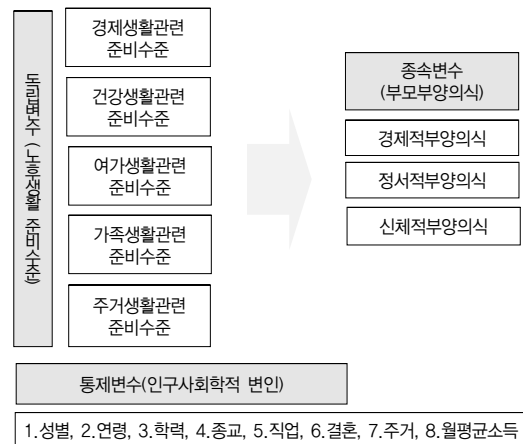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2.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 준비수준을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총 33개 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⑤ 매우 그렇다’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에 대한 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노후생활준비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김영완이 사용한 노후준비도 측정에 관한 설문 문항을 일부 참고하여 재구성 사용하였다[5].

표 4.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 준비수준

구분	하부 측정 내용
경제생활관련 준비 수준(10개 항목)	1.금융상품가입, 2.수익상품투자, 3.국민연금인식도, 4.개인연금가입, 5.퇴직연금활용계획, 6.노후관련 경제정보수집, 7.정부소득보장정책 인식도, 8.의료비부담경감위한 건강관리, 9.노후직업준비, 10.노후위한 경제적 준비
건강생활관련 준비 수준(8개 항목)	1.음식조절정도, 2.음주회피정도, 3.흡연회피정도, 4.정기건강검진실시, 5.규칙적인운동정도, 6.규칙적 생활정도, 7.체중관리정도, 8.적절한 휴식실시정도
여가생활관련 준비 수준(5개 항목)	1.봉사활동 참여정도, 2.사회활동 참여정도, 3.종교 활동 참여정도, 4.친구모임 참여정도, 5.취미생활정도
가족생활관련 준비 수준(7개 항목)	1.배우자활동동기, 2.배우자생활상담, 3.배우자 고민상담, 4.자녀생활 동기, 5.자녀와 중대사상의, 6.자녀와 고민상담, 7.원만한 가족관계유지정도
주거생활관련 준비 수준(3개 항목)	1.자녀와 별거생활준비정도, 2.자녀와 동거생활준비정도, 3.노인복지시설입주준비정도

2.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부모부양의식은 부양의 형식에 따라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부모부양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표 5]와 같이 각각 6개 항목 총 18개 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① 적극 동의’에서 ‘⑤ 적극 반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석 시에는 역점수화 하여서 적용하였다. 부모부양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남승호 및 서명순이 사용한 노후준비도 측정에 관한 설문 내용을 참고하였다[6][11].

표 5. 부모부양의식에 대한 측정 항목

구분	측정항목
경제적 부양의식	1.매월용돈지급, 2.병원비부담, 3.관광경비부담, 4. 생활비 지원, 5.취미·친목활동비지원, 6.정기건강검진지원
정서적 부양의식	1.부모의건강칭, 2.대화통한외로움극복, 3.부모입장이해, 4.가족활동확대, 5.가사활동의논참여, 6.부모행동존중
신체적 부양의식	1.의복청결유지, 2.병간호, 3.질병수발, 4.말동무마련, 5.문안전화및방문, 6.집안소일거리제공

2.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직업, 결혼, 주거, 월평균소득의 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각 지역에 거주하는 1955년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 총 25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4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일부 설문지 중에서 응답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제외하고 유효 응답자 154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자료는 지방의 한 개 대학 베이비부머 일부 학부모에 국한 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베이비부머 학부모의 의견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는 곤란할 수도 있음을 먼저 밝혀 둔다.

4.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는 척도의 신뢰도 검정을 한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독립변수인 노후준비 수준에 있어서 Cronbach's  $\alpha$  값이 .740~.911로 나왔으며, 종속변수인 노인부양의식에 있어서도 .846~.912로 나와 본 연구에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에 있어서는 변수 합산을 통해 하나의 대푯값으로 통합하여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산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경제적 부양의식, 정

서적 부양의식 그리고 신체적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상관관계와 공선성 진단을 통해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했다.

표 6.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정 결과

구분		항목	Cronbach's α
독립 변수	노후 준비 수준	경제생활관련 준비수준 10 항목	.812
		건강생활관련 준비수준 8 항목	.849
		여가생활관련 준비수준 5 항목	.740
		가족생활관련 준비수준 7 항목	.880
		주거생활관련 준비수준 6 항목	.911
종속 변수	부모 부양 의식	경제적 부양의식 6항목	.912
		정서적 부양의식 6항목	.881
		신체적 부양의식 6항목	.846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 154명 중 성별구성비는 남자가 64.3%(99명)이며 여자는 이보다 적은 35.7%(55명)로 나타났다. 출생연도별로 보면 1959년도까지의 전기세대가 32.5%(50명)이고, 1960년 이후 출생한 후기세대가 67.5%(104명)로서 전기보다는 후기세대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89.6%(138명)를 차지하였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 중 후기세대가 전기세대보다 교육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수혜를 많이 입은 결과로 추측된다.

표 7. 분석대상 베이비부머 가구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세부 항목	빈도 (N=154)	분포 (%)
성별	남자	99	64.3
	여자	55	35.7
연령	1955년~1959년생	50	32.5
	1960년~1963년생	104	67.5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16	10.4
	고등학교졸업	83	53.9
	대학교졸업	45	29.2
	대학원졸업이상	10	6.5

종교	불교	57	37.0
	천주교	20	13.0
	기독교	30	19.5
	없음	46	29.9
	기타	1	.6
현재 직업	무직	13	8.5
	자영업(가게)	38	24.8
	농업	12	7.8
	전문직	25	16.3
	일용직	10	6.5
	관리직(사무직)	34	22.2
기타	21	13.7	
혼인여부	혼(배우자있음)	134	88.2
	기혼(사별)	7	4.6
	기혼(별거)	2	1.3
	기혼(이혼)	9	5.9
주거상태	자가	123	79.9
	전세.월세	25	16.2
	영구임대	4	2.6
	기타	2	1.3
가족구성 형태	독거	7	4.5
	부부	23	14.9
	부부+자녀	103	66.9
	부부+부모(편부모)	5	3.2
	부부+부모+자녀	9	5.8
기타	7	4.5	
가족 수	3인 이하	60	39.1
	4인	62	40.5
	5인	20	13.2
	6인 이상	11	7.2

종교의 경우 70.1%(108명)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유무를 보면 자영업업을 포함해서 직업이 있는 사람이 91.5%(140명)였으며, 무직은 8.5%(13명)를 나타냈다. 가족구성형태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66.9%(103명)로 가장 많았다. 가족 수를 보면 4명 가족이 40.5%(62명)로 나타났다.

##### 2.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수준

독립변수인 베이비부머의 노후 생활준비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제생활관련 준비 수준을 [표 8]에서 보면, 노후준비를 위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는 의견이 72.8%(112명)로 많았고, 수익상품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39.9%(61명)이며, 여러 가지 경제관련 분야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비 지출을 염려한 건강관리에 대한 보통 수준 이상의 대답이 85.8%(132명)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 준비를 완료했다는 대답은 30.1%(46명)에 그쳤다.

표 8.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수준(경제생활)

구분	세부항목	빈도 (N=154)	분포 (%)
경제 생활 관련 준비 수준	금융상품 가입하고 있음	(전혀)그렇지 않다	8 5.2
		보통이다	34 22.1
		(매우)그렇다	112 72.8
	수익상품 투자하고 있음	(전혀)그렇지 않다	61 39.9
		보통이다	34 22.2
		(매우)그렇다	58 38.0
	국민연금만으 로 충분함	(전혀)그렇지 않다	98 64.4
		보통이다	36 23.7
		(매우)그렇다	28 11.8
	개인연금 추가가입 했음	(전혀)그렇지 않다	36 23.7
		보통이다	30 19.7
		(매우)그렇다	86 56.6
연금 활용계획 연구함	(전혀)그렇지 않다	34 22.2	
	보통이다	59 38.6	
	(매우)그렇다	60 39.2	
노후관련 경제정보 수집함	(전혀)그렇지 않다	39 25.5	
	보통이다	54 35.3	
	(매우)그렇다	60 39.2	
정부소득보장 정책 인식함	(전혀)그렇지 않다	38 24.7	
	보통이다	66 42.9	
	(매우)그렇다	50 32.2	
의료비 경감위한 건강관리 함	(전혀)그렇지 않다	22 14.3	
	보통이다	60 39.0	
	(매우)그렇다	72 46.8	
노후직업을 준비함	(전혀)그렇지 않다	47 30.7	
	보통이다	51 33.3	
	(매우)그렇다	55 36.0	
경제적 준비완료	(전혀)그렇지 않다	42 27.5	
	보통이다	65 42.5	
	(매우)그렇다	46 30.1	

두 번째, 건강생활관련 준비수준은 아래 [표 9]에서와 같이 건강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중요시 생각하고 여러 항목에 걸쳐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9.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수준(건강생활)

구분	세부 항목	빈도 (N=154)	분포 (%)
건강 생활 관련 준비 수준	건강위한 음식조절 중	(전혀)그렇지 않다	26 16.9
		보통이다	54 35.1
		(매우)그렇다	74 48.0
	건강위한 금주 중	(전혀)그렇지 않다	35 22.7
		보통이다	41 26.6
		(매우)그렇다	78 50.6
	건강위한 금연 중	(전혀)그렇지 않다	41 26.8
		보통이다	32 20.9
		(매우)그렇다	80 52.3
	정기검진 받고 있음	(전혀)그렇지 않다	13 8.4
		보통이다	47 30.5
		(매우)그렇다	94 61.0

	정기적 (규칙적) 운동함	(전혀)그렇지 않다	27 17.7
		보통이다	51 33.3
		(매우)그렇다	75 49.1
	규칙적인 생활습관 가짐	(전혀)그렇지 않다	18 11.6
		보통이다	64 41.6
		(매우)그렇다	72 46.8
	건강위한 체중관리 하는 중	(전혀)그렇지 않다	17 11.0
		보통이다	57 9.7
		(매우)그렇다	80 52.0
	적절한 휴식을 취함	(전혀)그렇지 않다	22 14.3
		보통이다	59 38.3
		(매우)그렇다	73 47.4

세 번째, 여가생활관련 준비수준을 보면, 5개 항목 중 봉사활동, 사회활동 및 종교 활동 참여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그렇다는 대답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친구모임 참여나 취미생활을 즐긴다고 답한 수치는 높게 나타났다.

표 10.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수준(여가생활)

구분	세부항목	빈도 (N=154)	분포 (%)
여가 생활 관련 준비 수준	봉사활동 참여	(전혀)그렇지 않다	79 52.0
		보통이다	26 17.0
		(매우)그렇다	47 31.0
	사회활동 참여	(전혀)그렇지 않다	49 32.2
		보통이다	34 22.4
		(매우)그렇다	69 45.4
	종교 활동 참여	(전혀)그렇지 않다	73 47.7
		보통이다	31 20.3
		(매우)그렇다	49 32.0
	친구모임 참여	(전혀)그렇지 않다	11 7.3
		보통이다	37 24.3
		(매우)그렇다	104 68.4
취미생활 즐김	(전혀)그렇지 않다	22 14.5	
	보통이다	44 28.9	
	(매우)그렇다	86 56.6	

네 번째, 가족생활관련 준비수준에서는 7개 항목 모두가 긍정적 준비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1.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수준(가족생활)

구분	세부항목	빈도 (N=154)	분포 (%)
가족 생활 관련 준비 수준	배우자위로 및 활동 적극도움	(전혀)그렇지 않다	17 11.1
		보통이다	65 42.8
		(매우)그렇다	70 46.1
	배우자와 중요한일 상의	(전혀)그렇지 않다	12 7.8
		보통이다	47 30.9
		(매우)그렇다	93 61.2



배우자와 힘든 일 솔직한 대화	(전혀)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15 54 83	9.8 35.5 54.6
자녀를 물심양면 도움	(전혀)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11 51 90	7.3 33.6 59.2
자녀와 중요한 일 상의	(전혀)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19 57 76	12.5 37.5 50.0
자녀와 힘든 일 솔직한 대화	(전혀)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23 66 64	15.0 43.1 42.0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전혀)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15 46 92	9.8 30.1 60.2

다섯 번째, 주거생활관련 준비수준에서는 6개 항목 중 건강할 때의 질문 3개 중 2개 항목은 그렇다고 답한 수치가 높았으며, 노인복지시설 입주 준비여부에 있어서 그렇지 않음이 45.0%(67명)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플 때의 질문 3개는 각각 다른 결과가 나왔으며, 특히 노인복지시설 입주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44.3%(66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24.9%(37명)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표 12.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수준(주거생활)

구분	세부항목	빈도 (N=154)	분포 (%)	
주거생활 관련 준비 수준	건강할 때 자녀와 별거 준비되어 있음	(전혀)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38 46 68	25.0 30.3 44.7
	건강할 때 자녀와 동거 할 준비되어 있음	(전혀)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44 50 54	29.7 33.8 36.5
	건강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입주 준비 됨	(전혀)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67 45 37	45.0 30.2 24.8
	아플 때 자녀와 별거 준비되어 있음	(전혀)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47 54 46	32.0 36.7 31.2
	아플 때 자녀와 동거 할 준비되어 있음	(전혀)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54 54 40	36.5 36.5 27.0
	아플 때 노인복지시설에 입주 준비 됨	(전혀)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66 46 37	44.3 30.9 24.9

### 3. 베이비부머의 부모부양 의식

베이비부머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표 13]에서와 같이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그리고 신체적 부양의식에 있어서 전체 항목에 있어서 ‘동의’ 및 ‘적극동의’에 답을 한 수준이 54.6%에서 85.7% 수준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전체적으로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반대’ 및 ‘적극반대’ 의견도 소수 있었으나 크게 우려할 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표 13. 베이비부머의 노부모 부양의식

구분	세부항목	빈도 (N=154)	분포 (%)		
경제적 부양의식	매월 용돈지급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130 19 5	84.4 12.3 3.3	
	병원비 부담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131 21 2	85.1 13.6 1.3	
	효도여행이나 노인관광 경제적 지원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122 30 2	79.2 19.5 1.3	
	부모님 생활비 지원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123 28 3	79.9 18.2 1.9	
	취미생활, 친목활동 경비 지원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117 32 5	76.0 20.8 3.2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126 26 2	81.8 16.9 1.3	
	부모님 말씀 경청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102 42 10	66.2 27.3 6.5	
	대화통한 외로움극복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108 43 3	70.1 28.0 1.9	
	정서적 부양의식	불필요잔소리 부모입장 이해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101 46 7	65.6 29.9 4.5
	가족활동 확대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103 48 3	66.9 31.2 1.9	
	가사활동 논의 참여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96 55 3	62.3 35.7 1.9	
	신체적 부양의식	하찮은 부모행동도 존중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84 50 20	54.6 32.5 13.0
	의복 청결 유지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132 22 0	85.7 14.3 0.0	
	병 간호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122 30 2	79.2 19.5 1.3	
	질병 수발	(적극)동의 보통 (적극)반대	113 38 3	73.4 24.7 1.9	

말동무 마련	(적극)동의	111	72.1
	보통	40	26.0
	(적극)반대	3	1.9
문안전화 및 방문	(적극)동의	111	72.1
	보통	41	26.6
	(적극)반대	2	1.3
집안 소일거리 제공	(적극)동의	101	65.6
	보통	46	29.9
	(적극)반대	7	4.5

#### 4.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수준과 부모부양의식의 연관성

독립변수인 노후준비 수준과 종속변수인 부모부양의식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하기 이전에 독립변수인 노후준비 수준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14.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1	2	3	4	5
1 상관계수 유의확률 N	1.000 113				
2 상관계수 유의확률 N	.313** .001 111	1.000			
3 상관계수 유의확률 N	.406** .000 112	.403** .000 113	1.000		
4 상관계수 유의확률 N	.277** .003 111	.408** .000 112	.329** .000 113	1.000	
5 상관계수 유의확률 N	.582** .000 105	.162 .098 106	.501** .000 108	.358** .000 106	1.000 108

구분 : 1. 경제생활관련차원 노후준비, 2. 건강생활관련 노후준비, 3. 여가생활관련 노후준비, 4. 가족생활관련 노후준비, 5. 주거생활관련 노후준비  
상관유의 수준 \* : P < 0.05 \*\* : P < 0.01 \*\*\* : P < 0.001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각 독립변수들은 5개 그룹으로 변수를 통합하여 대푯값을 취하여 Spearman의 rho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4]에서와 같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582 수준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에 크게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들을 회귀분석에 포함시켜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 5. 노후준비가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부양의식의 총합을 종속변수로 하여, 경제생활 관련 노후준비수준, 건강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여가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가족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주거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의 5가지를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나이(출생연도), 학력, 종교, 직업, 혼인여부, 주거상태, 월평균소득의 8가지를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종교, 주거상태, 월평균소득 3가지 통제변인에 있어서 각 노후준비수준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 모형의 신뢰도는 모두 유의수준인 \*p<.05 보다 작으므로 이 모형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표 16].

전체 통제변인에 따른 노후생활준비수준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의확률이 .001~.015(\*p<0.05)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R제곱 .138~.190으로서 13.8%~19.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F값은 2.395~3.43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었다. 독립변수 각각에 의한 종속변수인 부모부양의식에 있어서 모두가 유의확률 .037이하(\*p<0.05)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15. 모형 요약

모형(독립변수)	R 제곱	수정된R 제곱	F	유의확률
1. 경제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합	.160	.104	2.879	.004 <sup>a</sup>
2. 건강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합	.159	.103	2.872	.004 <sup>a</sup>
3. 여가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합	.183	.130	3.434	.001 <sup>a</sup>
4. 가족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합	.138	.080	2.395	.015 <sup>a</sup>
5. 주거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합	.182	.127	3.274	.001 <sup>a</sup>
6. 노후준비수준 총합	.190	.134	3.416	.001 <sup>a</sup>

- a. 예측값 : (상수), 경제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합, 출생연도, 현재직업, 종교, 혼인여부, 성별, 학력, 월평균소득, 주거상태
- b. 종속변수 : 부모부양의식 총합

<sup>1</sup> 상관계수가 0.800이상인 경우 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함(Knoke 외, 2002).

표 16. 계수<sup>a</sup>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129.597	627.795		.206	.837
	통제변인 <sup>b</sup> : 월평균소득	1.625	.630	.230	2.579	.011
	독립변수 : 경제생활	.367	.127	.258	2.883	.005
2	상수	384.434	633.264		.607	.545
	통제변인 <sup>b</sup> : 주거상태	2.299	1.050	.186	2.188	.030
	월평균소득	1.439	.620	.206	2.322	.022
	독립변수 : 건강생활	.343	.133	.213	2.573	.011
3	상수	93.033	613.652		.152	.880
	독립변수 : 여가생활	.644	.188	.301	3.424	.001
4	상수	399.059	647.203		.617	.539
	통제변인 <sup>b</sup> : 종교	1.227	.590	.171	2.080	.039
	월평균소득	1.601	.648	.226	2.471	.015
	독립변수 : 가족생활	.379	.180	.197	2.112	.037
5	상수	475.513	652.712		.729	.468
	통제변인 <sup>b</sup> : 종교	1.163	.578	.164	2.013	.046
	월평균소득	1.442	.669	.200	2.154	.033
	독립변수: 주거생활	.484	.149	.278	3.255	.001
6	상수	388.719	635.350		.612	.542
	통제변인 <sup>b</sup> : 평균소득	1.599	.627	.227	2.551	.012
	독립변수:노후 준비총합	.198	.053	.342	3.713	.000

a. 종속변수 : 부모부양의식 총합  
 b. 통제변인 8개 (성별, 출생연도, 학력, 종교, 현재직업, 혼인여부, 주거 상태, 월평균소득) 중 유의미한 변인만 나타냄.

### V. 결론

고령화가 가속되는 오늘날의 사회현상 속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부모부양의식의 약화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는 많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더더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그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와 끼인 세대로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를 둔 15세대 본인들의 노후준비 수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노후준비수준에 따른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인에 따른 결과를 보면 성별, 연령, 학력, 종교, 현재직업, 혼인여부, 주거상태, 월평균소득의 8가지 항목 중에서 월평균소득>종교>주거상태의 순서로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경제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건강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여가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가족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주거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그리고 노후준비수준 총합 모두에서 부모부양의식과 관련하여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본인들의 노후준비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부모부양의식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주거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과 여가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의확률이 .001(\*p<0.05)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경제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이 .005(\*p<0.05)의 유의확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본인의 노후 준비수준이 낮다고 해서 그들의 부모를 모시고자하는 부양의식이 반드시 낮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제한적 조사대상을 표집 함으로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조사대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부모부양의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냄으로서 본인들의 노후 준비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그들의 부모부양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 번째, 그들의 주거생활과 관련한 안정적 지원정책이 차별화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아직 젊은 그들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생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가복만, *동아시아중장년층의 부양의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2] 광인숙, 홍성희,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설계 인식과 준비도: 전·후기집단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47-172, 2013.
- [3] 김경미, *노인부양형태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4] 김미혜, 신경민, 강미선, 강인, “고령 한국사회의 부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별 부양 분석을 통하여,” *한국노년학*, 제26권, 제3호, pp.617-639, 2006.
- [5] 김영완,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6] 남승호, *노부모 부양의식과 노후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7] 문지원,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경제개발세대 및 X세대와의 비교분석-*,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8] 박현식,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8권, pp.281-302, 2012.
- [9] 백은영,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와 준비유형 결정 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2호, pp.357-383, 2011.
- [10] 삼성경제연구소,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주요국(미일) 비교 포함-*, 삼성경제연구소보고서, 2010.
- [11] 서명순, *노인부양의식에 관한연구 - 병원직원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2] 안지형, *서울지역의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의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3] 유용식,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738-747, 2013.
- [14] 이소정, 정경희, 김경래, 이은진, 강인, 이금룡, 한정란,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정책보고서, 2011.
- [15] 이승신,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연구: 일반적 및 경제적 특성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4권, 제2호, pp.73-95, 2013.
- [16] 이용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53-261, 2013.
- [17] 이위환, 권용신, “가족친밀감과 노인의식이 노인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제14권, 제2호, pp.165-178, 2005.
- [18] 이호정, “대학생이 자각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노인에 대한 태도와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제14권, 제1호, pp.75-103, 2008.
- [19] 전해성, 김미영, “중년기의 노부모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평가와 개인의 노후설계 간의 관계성 탐색,”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2호, pp.206-231, 2012.
- [20] 정경희, “베이비 붐 세대의 제특성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74호, pp.5-10, 2011.
- [21] 정경희, 남성호, 오영희, 이소정, 정홍원, 이은진, 김성숙, 류건실, 신현규, 정정숙, 전현숙, 한정림,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정책보고서, 2012.
- [22] 정순돌, 이현희, “가족특성과 노후준비의 관계: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 노인세대 비교,” *노인복지연구*, 제58권, pp.209-230, 2012.
- [23] 조추용, “노인의 부양기대감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pp.65-82, 2004.
- [24] 최세영,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평택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5] 최옥숙,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26] 최윤희, *중년기의 부부관계 및 부양의식과 노후 준비와의 관계*,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27]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2006, 2008, 2010, 2012, 2013.
- [28] 홍성희, 박인숙,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 경제적 준비와 건강 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pp.193-207, 2006.
- [29] D. A. Miller, “The sandwich generation: Adult children of the aging,” *Social Work*, Vol.26, pp.419-42, 1981.
- [30] D. K. Orthner, “Intimate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marriage and the family,” Reading, MA: Addison-Wesley, 1981.

저 자 소 개

박 근 수(Keun-Soo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1997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제학 박사
  - 2008년 2월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1993년 3월 ~ 2016년 2월 현재 :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정책 및 다문화가족

김 태 일(Tae-II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2016년 2월 :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6년 2월 현재 :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다문화 이주여성 지원, 사회적기업